

떠오르는 금투자, 금ETF

조은지

□ 금값 폭등과 금ETF

- 코로나19의 여파로 금값이 전례 없이 상승함. 팬데믹 대응책으로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사들인 까닭도 있지만, 이번 폭등의 배경에는 글로벌 ETF가 있음.
- 금ETF는 현물 금이나 선물 지수에 연동되는 인덱스펀드임. 코로나19로 경제가 불안정하자 안전자산인 금이 주목받고, 그 가운데 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ETF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
- 개인이 현물에 연계된 금ETF를 구매한다고 해서, 실제로 금을 소유하지는 않음. 금ETF는 상장된 펀드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거래와 다르지 않음. 그러나 금ETF 1주는 금 0.1온스를 구매하는 효과를 지님. 예컨대, 대표적인 금ETF인 'SPDR Gold Shares'는 실물 금을 대상으로 하고, 매입이 이루어진 만큼 런던의 HSBC 금고에 금을 저장함.

□ 세계의 금: 공공부문

- 세계금위원회에 따르면, 세계금총량은 약 19만 톤임. 이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의 보유량 합계는 35,017.8톤임. 국가 별 통화정책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세계금총량의 20% 정도를 공공부문에서 소유하고 있는 셈임.
- 구체적인 국가별 공공 금보유량은 <표 1>과 같음. 미국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탈(脫)달러를 외치며 금을 모으는 러시아와 중국의 추세도 주목해야 함. 러시아는 2014년부터 보유량을 급격히 늘려 현재 2,299.9톤의 금을 가지고 있음. 중국도 지난 5년간 500톤의 금을 매입하며 보유량을 늘린 상태임.

<표 1> 공공부문의 금 보유량

(단위: 톤, %)

순위	국가	금 보유량	외환보유액 중 금 비중
1	미국	8,133.5	79.0
2	독일	3,363.6	75.6
3	국제통화기금(IMF)	2,814.0	-
4	이탈리아	2,451.8	71.3
5	프랑스	2,436.0	65.5
6	러시아	2,299.9	23.0
7	중국	1,948.3	3.4
정부 소유 합계		35,0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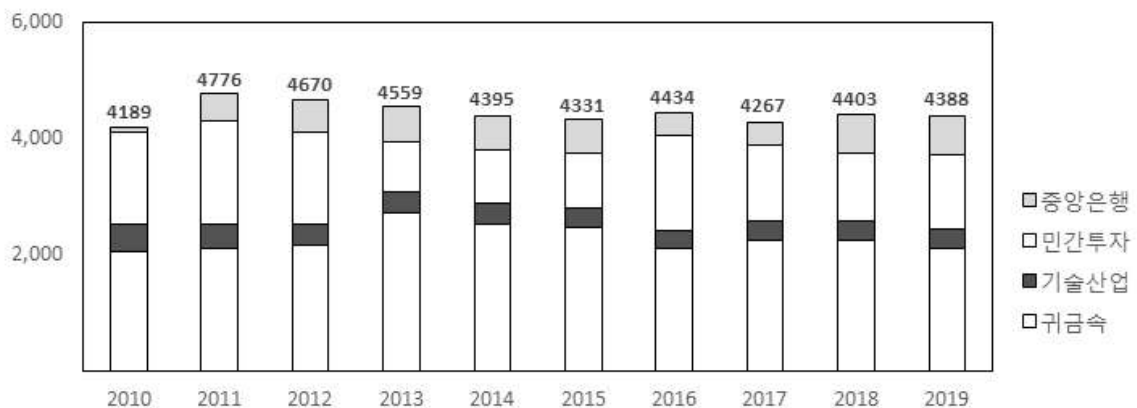
출처: 세계금위원회(2020.08)

□ 세계의 금: 민간부문

- 민간부문의 금은 크게 귀금속, 기술산업, 민간투자 분야로 구분됨. <그림 1>에 따르면, 매년 4,500톤 정도의 금이 새롭게 생산되고 그 중 절반이 귀금속류로 유입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에는 귀금속 수요가 줄고 투자 비중이 확대됨.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금ETF로 734톤의 금이 유입됨. 이는 2009년 연간 기록인 647억 원을 뛰어넘는 수치로 글로벌 ETF로 금이 쏠리고 있음을 의미함.

<그림 1> 분야별 금 유입량

(단위: 톤)



출처: 세계금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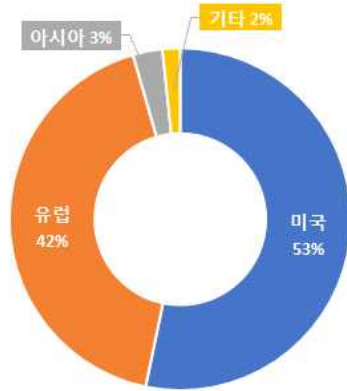
□ 금ETF

- <표 2> 대륙별 금ETF 규모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에 집중되어 있음. 아시아와 이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의 흐름이 약함. ETF시장 전체에

[팩트&파일]

는 3,785.0톤의 금이 보유되어 있을 것이라 추정됨. 이는 미국을 제외한 각국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을 웃도는 양임.

<표 2> 대륙별 금ETF 규모



(단위: 10억 달러, 톤)

대륙	금ETF 운용규모	금 보유량
미국	127.4	2,016.0
유럽	101.1	1,601.0
아시아	6.7	105.3
기타	4.0	62.7
총계	239.2	3,785.0

출처: 세계금위원회

- <표 3>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SPDR Gold Shares가 국제적인 유입을 주도함. 이는 단일종목으로는 가장 많은 양인 1,248.1톤의 금을 보유함. 유럽에서는 Invesco Physical Gold와 iShares Physical Gold가 두드러짐.

<표3> 금 유입 및 보유량 상위 금ETF

(단위: 톤)

금ETF 종목	국가	2020 상반기* 금 유입량	총 금보유량
SPDR Gold Shares	미국	355.1	1,248.1
iShares Gold Trust	미국	140.8	500.9
iShares Physical Gold ETC	영국	89.3	232.9
Invesco Physical Gold ETC	영국	66.2	212.2
Xetra-Gold	독일	21.0	224.4

*2020년 연초부터 8월 14일까지(YTD)

출처: 세계금위원회, 블룸버그

□ 금ETF, 화폐가치 불안정성을 보완

- 안전자산으로서 금에 대한 선호는 달러 가치가 흔들리고 있음을 방증함. 근래 금값 폭등은 달러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명목가격 상승의 결과이기도 함. 여기서 금을 귀금속이나 골드바, 금통장 등이 아니라 금ETF를 통해 소유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금ETF는 금융시장에 상장되어 실시간 거래가 가능함. 또한, 금융 시장은 공간에 국

[팩트&파일]

한되지 않기에 금ETF도 국경을 초월함. 나아가, 금ETF는 세계금총량 내에서 충분한 규모로 확장될 수 있음. 이는 세계 화폐를 연상케 함.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라면, 금ETF는 화폐의 대체재로 다시 주목받고 있음.